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네팔, 개종 시 징역 5년 개정법안 통과

CSW, 인도도 개종금지법 통과될 듯

네팔에서 특정 종교에 대해 개종을 강요하면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처해지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가 최근 밝혔다.

세계기독교연대는 비드야 데비 반다리 대통령이 종교개종을 범죄로 규정하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금하는 법률을 지난 8월 통과시킨 후 16일(현지 시간) 형법 제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특정 종교의 개종을 강요하는 것에 최고 5년,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도록 돼있다.

종교자유 운동가들은 “이 법안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이를 폐지할 것을 꾸준히 정부에 요청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세계기독교연대 머빈 토마스 총재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각 주장하는 개종금지법과 신성모독법이 종교적 긴장을 조장하고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았다.”며 “네팔은 2015년 이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 중 하나인 헌법 26조 3항을 근거로 차리코

트 지역에서 기독교 만화책을 소지한 8명을 붙잡는 데 사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네팔의 새로운 형법 제정이 통과됨으로써 인접국인 인도도 네팔과 비슷한 개종 금지법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NPNEWS]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여호수아 24:15)

기도 | 주님, 네팔에서 종교개종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네팔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이때 네팔의 교회가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교회를 통하여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주님을 만나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회복 하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 잠비아의 영락기독교학교에서

제공: WMM

타박타박

걷는 걸음에 흥먼지가 조금 휘날려도 괜찮다. 등교시간에 맞춰 말쑥한 단정한 옷차림에 백팩을 메고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은 즐겁다. 덩성덩성한 나무 몇 그루, 웅덩이처럼 들뜬반에 보이지 않지만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마침내 도착한 학교는 아이들에게 우주만큼 삼라만

상이 펼쳐지는 즐거운 배움의 터전이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며, 그림을 그려보고 노래를 배우고, 달리고 뒹굴며 세상 이치를 조금씩 배워간다. 마침내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궁극의 질문 앞에 선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며, 그를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인 것을 깨닫게될 때,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진다. [GNPNEWS]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전도서 12:1~2)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46)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과거는 잊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늘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새로운 결심'은 있었지만 '새로운 나'는 없었습니다. 왜 그토록 새롭게 되기가 어려울까요? 사람은 결심해서, 그리고 고치고 개선해서 새롭게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당신은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죽어야만 다시 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당신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이름표를 달고 당신 죄를 감당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당신도 함께 죽었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새 생명이 되셔서 그분이 당신의 완전한 통치자, 왕이 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던 당신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더 이상 이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당신은 새롭게 태어나며, 그토록 지켜왔던 삶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당신이 새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불행했던 당신, 자신이 주인 되었던 옛사람의 당연한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 하



일러스트=김경선

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의 죽음과 부활이 삶의 실체가 될 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지금부터 영원한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누리는 복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 한국

교총, “동성애교육 금지하는 현행 성교육 제도 유지해야” 건의 2면

기획 |

2017 다시복음앞에 집회 “오직 믿음” 말씀과 기도의 향연 3면

믿음의 현장을 가다 | 양문수 대표

“공연예술을 통해 청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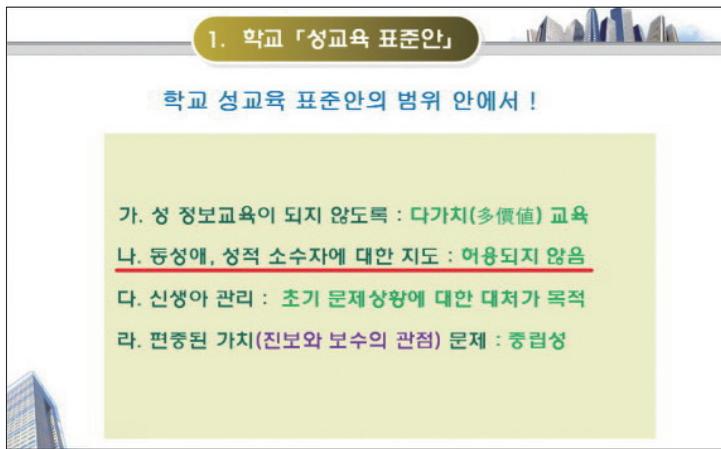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낙심케 할 이유보다 승리의 복음을 주목하라”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한국

교총, “동성애교육 금지하는 현행 성교육 제도 유지해야” 건의



▶ 출처: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 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국가의 교육은 올바른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사 개인의 성(性)인식이나 가치관에 따른 교육이 아니라며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정 움직임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최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동성애, 동성혼, 혼전동거 등에 대해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체계 하에

인정하는 교육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 학생의 성경험 비율이 증가하고 성관계 경험의 시작연령이 낮아지고 매체의 발달로 왜곡된 성지식과 정보가 범람함에 따라 기존 처방 중심의 성교육과 부분적·산발적·즉흥적 교육으로는 올바른 대처가 쉽지 않다."며 현행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 주장을 일축했다.

교총은 또 "일부 단체에서 청소년들의 성관계할 권리를 주장하고, 일부 교사들이 '결혼만이 아닌 동거나 동성 간 결혼 등 다양한 가족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어도 학생 신분으로서 금욕을 기본으로 가르치고 현행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GNPNEWS]

아시아

인도, 예배중 교회에 힌두교인 침입해 난동

인도 차티스가르주 맨트와다구 자사파라 마을에 위치한 크리스천 무브먼트 교회에 힌두교인들 300여 명이 침입해 난동을 피우고 폭력을 휘둘러 다수의 신도가 부상을 입었다고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가 밝혔다.

목격자들은 "힌두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던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을 때리며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며 "신앙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거절하면 막대기로 마구 때렸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에 불을 지르고 몇 명의 여성 신도의 옷을 벗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번 폭행 과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 9명이 다쳤으며, 이중 2명은 병원에 입원했으나 위독한 상태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묵인하며 수사 협조를 거부하다 국제기독교연대가 언론에 이번 사건을 제보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기독교연대에 따르면, 교회 성도들은 사고 발생 전 경찰에게 급진적 힌두교도들을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대는 "사건 발생 후 교회는 24시간 동안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나 폭동에 참여한 힌두교도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일은



▶ 교회에 대한 압박에 맞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인도 성도들(출처: Chrtistiantoday 캡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에서 기독교박해국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 동안 기독교인 박해 건수가 410건에 이른 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0.16~10.29)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영국, ISIS 가세한 자국민들 일단 살해하기로

영국 정부가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에 가세한 자국민 조직원들을 죽인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로리 스투어트 영국 외무부 차관은 "불행하게도 거의 모든 사례에서 그들을 다룰 유일한 방안은 사형"이라고 말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를 또다시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악을 행한 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영국 국민들을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시고 영국정부가 생명의 통로로 서게 하옵소서.

세계 영유아 사망률 역대 최저...그래도 매일 1만5천명 사망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펴낸 '영아 사망 수준과 경향 보고서 2017'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5세 미만 영유아 사망자 수는 560만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18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하나님, 전 세계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영아가 사망 중에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는 영아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산모와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들려지길 기도합니다.

소말리아 폭탄테러로 70여 명 실종... 사망자 400명 달할 듯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지난 14일(현지시간) 발생한 폭탄 공격 이후 실종자가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전체 사망자는 4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7일 BBC가 보도했다. 부상자도 4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70명 정도는 중태다.

주여,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마지막 때에 소말리아의 테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악한 자의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고통당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11월 5일 ~ 11월 18일

11월 5일~11일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010-5337-2771

▶경북 경산 / 열매교회 (서**)010-3825-5515

▶경기 부천 / 산돌교회 (김동욱)032-324-6539

▶전남 광주 / 십자가사랑교회 (김**)010-6280-4419

11.6~7,9~10(매일 10시~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11.6~10(매일 14~19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11.8(0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 (남**)010-8268-6879

11.9(06~12시)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11.9~11(매일 07시~19시)

▶전북 전주 / 전주은혜교회 (정**)010-4272-9905

11.10(08시~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11.10(22시)~11(22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11월 12일~18일

▶전남 광주 / 십자가복음교회 (김**)010-9883-2347

▶전북 지역 / 미정 (김**)010-7117-9397

11.13~14(매일 06시~18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 (김**)010-3290-4316

11.13~14,16~17(매일 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11.13~17(매일 14시~19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11.16(06시~12시)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11.17(08시~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11.17(22시)~18(22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알림

복음의 소리 '316전화' 통해 신앙상담

기독교 신앙이나 복음을 누리는 삶에 대한 의문을 상담할 수 있는 전도용 상담 전화 복음의 소리 '316전화'(☎ 1670-3160)가 운영되고 있다.

본지를 발행하는 복음과기도 미디어의 <내가급하다 전도편지100> 책 발간과 함께 개설된 '316전화'는 지난 6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했다. 그동안의 상담사례를 보면 현금의 원리 등 교회생활과 신앙 전반적인 상담을 요청하는 초신자부터, 선교와 진로에 관한 구체적인 고

민을 상담하는 고등학생, 주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내면에 방해가 되는 문제에 관한 것 등을 상담하는 성도까지 다양한 대상과 질문들이 있었다.

'316전화' 상담자로 섬기는 복음의 증인들은 상담요청자의 구체적인 질문과 사례에 맞는 말씀을 찾아 성경적인 근거로 응답하고, 십자가 복음을 나눈다. 또한 상담요청자가 원하는 경우 직접 만나 상담할 것을 제안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성 설교 CD와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상담을 제안했다. 또한 상담요청자가 신앙을 갖기로 결단한 경우 지역교회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상담 전화 ☎ 1670-3160, 문의 ☎ 070-7417-0408~10, 이메일 gnmedia@gnmedia.org [GNPNEWS]



▶ 2015년 다시복음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회 전경

2017 다시복음앞에 집회 “오직 믿음” 말씀과 기도의 향연

복음기도동맹, 10월 31일부터 3박 4일간 선한목자교회에서

복음과 기도를 삶과 사역의 중심 가치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연합한 교회 및 기독교단체들의 모임인 복음기도동맹이 '2017 다시복음앞에' 대회로 다시 뭉친다.

복음기도동맹은 2011년 '오직 은혜의 복음', 2013년 '오직 성경', 2015년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16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의 강령들을 외치며 '다시복음앞에' 집회를 이어왔다.

그리고 올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2017 다시복음앞에'가 종교개혁기념일인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다섯 번째 마지막 강령인 '오직 믿음'의 주제로 3박 4일간 선한목자교회(담임 유기성 목사)에서 열린다.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들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

이번 대회에서도 복음과 기도의 증인으로 국내외에서 사역중인 목회자와 선교사, 신학자들이 대거 강의와 간증으로 섬겨, 다양한 색

갈의 진리 선포와 고백으로 풍성한 천국잔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와 걸맞게 믿음의 다양한 표현들로 이루어진 강의 제목들이 눈에 띈다.

먼저 새벽 시간은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완성의 그 날을 기다리며 땅끝에서 순종하고 있는 현장선교사들의 메시지를 듣는다. 선교현장의 여러 불가능한 현실들 속에서 어떻게 그 날의 영광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증인들의 고백을 듣게 될 예정이다.

오전 시간 중 첫 번째 시간에는 '전쟁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전쟁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된다. 특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동성애와 진화론의 문제를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 담임)와 이재만 교수(창조과학선교

회 회장)가 강의로 섬기게 된다.

오전 시간 중 두 번째 시간은 '움직이는 믿음'이다. 이 시간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라는 고백으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증인들로부터 믿음의 과정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게 된다. 메시지는 다음세대를 길러내는 교육현장에서 박종진 선교사(헤브론선교대학교 본부장)와 조완순 선교사(헤브론원형학교 교장)가,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긍휼사역의 영역에서 김정화 선교사(전능자의 그늘 미니스트리 대표)가 섬긴다.

오후 시간에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강의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바른 신학과 교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는지를 신학의 영역에서 민경동 장로(전 에스라성경대학원 총장),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담임),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담임)가 나눌 예정이다.

저녁 시간에는 '다시복음앞에'라

는 제목을 가지고 이 대회의 주제 성구인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도균 목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 김용의 선교사(LOG미션 대표)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참되고 진정한 믿음에 대해 말씀을 선포한다.

뮤지컬 '더 북' 특별공연으로 믿음의 결단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간증자들의 간증과 복음기도동맹 행동강령으로 이루어진 체조가 대회일정 사이사이 준비되어 있어 더욱 생동감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대회의 마지막 순서로 올려지는 문화행동아트리의 뮤지컬 '더 북(The Book)'은 기존의 공연과는 다른 특별공연으로 준비되어 기대를 더하게 한다. 이 뮤지컬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종교개혁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복음기도동맹은 복음과 기도를 생명으로 취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고백을 담은 복음기도동맹 선언문과 예배, 복음, 기도, 연합, 권위, 소유, 선교 7가지 영역에 대한 행동강령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순종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의 몸 된 한국교회를 섬겨나갈 예정이다.

[GNPNEWS]

복음기도신문, 온라인뉴스로 다시복음앞에 대회 현장 중계

복음기도신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는 다시복음앞에 대회를 전용 사이트 '다시복음앞에 뉴스'(rttg.gnpnews.org)와 복음기도신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지난 2011년 대회부터 지난 2016년 대회를 현장 중계해온 '다시복음앞에 뉴스'는 강사들의 메시지 요약소개와 참가자들의 다양한 간증과 에피소드 등을 담아, 독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GNPNEWS]

로그인 / 회원가입 ABOUT 문의하기 연락처

RTTG NEWS
Return To The Gospel News
다시복음앞에 뉴스

2017 2016 2015 2013 2011 사진 영상

3을 위한 *Pia desideria*

[집회중계 5] “종교개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

10월31일(화)	11월1일(수)	11월2일(목)	11월3일(금)
	5:30 기상		
	6:30 바라는 믿음		
	7:40 김재영	김요단	이경우
8:40 등록 및 접수	8:50 아침식사		
	9:30 예배		8:40 폐회예배
10:20 개회예배 오직 믿음으로! 김용의	9:40 믿음의 증인	9:40 믿음의 증인	오직 믿음으로! 배철희
	9:45 전쟁하는 믿음 이태희	9:55 전쟁하는 믿음 이재만	9:50 휴식
12:45 점심식사	11:40 점심식사	11:50 점심식사	10:10 뮤지컬 'The Book'
13:55 움직이는 믿음 초대교회-종교개혁 박종진	13:20 로마에 온 편지 헤브론원형학교	13:40 움직이는 믿음 조완순	13:00 폐회
16:00 휴식	15:35 휴식		
16:30 믿음의 증인	15:55 체조		
16:45 살아있는 믿음 민경동	16:05 믿음의 증인		
18:30 저녁식사	16:15 살아있는 믿음		
19:40 예배	18:00 임석순	화중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9:15 저녁식사		
20:30 다시복음앞에	20:15 다시복음앞에		
	22:30 하도균	유기성	김용의
	취침		

기획 | 조선선교열전 (10) - 전라북도 편·끝

머슴이 장로로, 주인이 평신도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2주년을 맞고 있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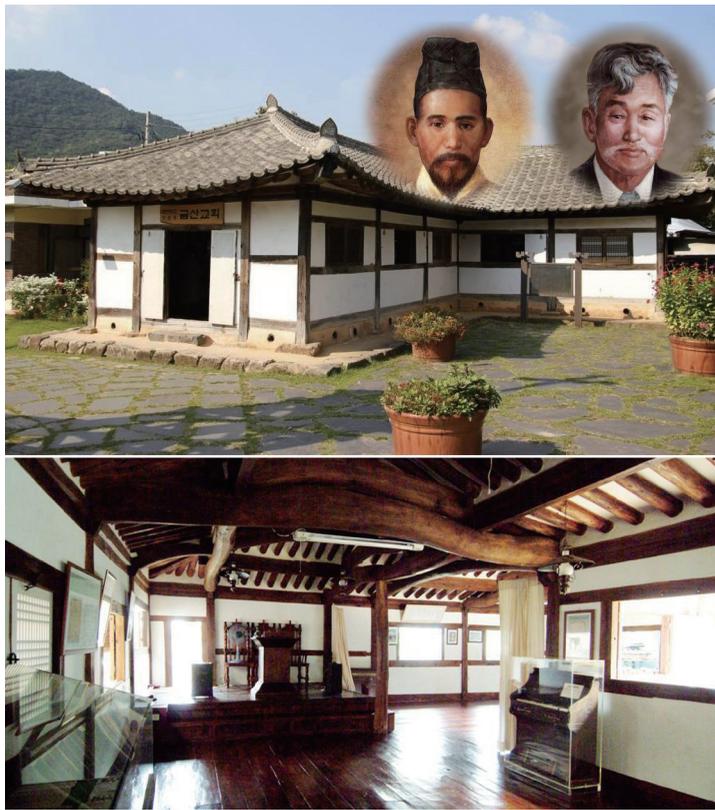
110년 믿음의 유산, 김제 송지동교회

군산과 익산을 넘어 김제에도 교회들이 세워졌다. 김제 서부지역의 송지동교회는 전킨 선교사가 만경강을 건너 1897년 5월 3일 김제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이다. 송지동에 살던 주민들이 군산에서 장을 보고 오던 길에 전킨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송지동 문학선 씨 댁 대청마루에서 송원선, 강문성, 최치국, 문학선, 문종삼 씨 외 다수가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때가 1896년도였다. 그 후 믿는 사람이 늘어나 1897년에 선교사들에 의해 정식으로 교회 설립이 보고됐다. 전킨 선교사가 교회를 돌아보며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다. 그 후 해리슨 선교사, 불 선교사가 계속해서 교회를 돌아보며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 특히 불 선교사는 전북 지역 교회들을 많이 돌아보며 복음을 전했다. 1937년까지 수시로

송지동교회 당회장을 역임했다. 송지동교회는 110년이 넘게 이어져 오면서 지금까지 교회 분열을 한번도 겪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있다.

남녀 좌석을 구분한 7자형 금산교회

금산교회는 호남7인의 선발대 중 한 사람인 미국 남장로교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 1900년 설립됐다.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36호에 지정된 이 교회는 테이트 선교사와 조덕삼, 이자익, 박화서, 왕순칠 등의 주도로 1908년 7자형 한옥 교회를 건축했다. 금산교회의 내부는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강단 좌측으로 여신도가 앉고 정면에 남자들이 앉는 자리로 구분했다. 여신도 좌석 쪽에는 차단막을 쳐서 남녀가 서로 보지 못하게 했다. 이 차단막은 1940년경에 철거되었다고 한다. 북서쪽 모서리에 있는 5평 정도의 강단은 2단으로 꾸며져, 결과적으로 3층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전래의 제단 구조이면서 동시에 '뜰, 성소, 지성소'로 이루어지는 성막의 3중 구조를 상징하며, 복음의 도착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단 뒤쪽으로 목사들이 드나들던 조그마한 쪽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야 했다. 목회자들



▶ (위)금산교회 한옥예배당 현재 모습과 조덕삼 장로(좌), 이자익 목사(우)의 모습. 금산교회 내부 7자 형태. 강대상을 중심으로 왼쪽이 여자, 오른쪽이 남자들이 앉던 자리(출처: 한국기독교회사)

은 이 문을 드나들면서 '겸손'을 배웠다고 한다.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거상이자 지주였던 조덕삼은 금산교회의 운영에도 많은 후원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자익보다 나이가 15살이나 많았고, 금산교회의 설립자였으며, 인격적으로나 신앙

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1908년 장로 피택에서 선출된 사람은 이자익이었다. 신분제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권위적인 구습들로 교회 내 차별이 여전한 때에 주인이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된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다. 조덕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가 되고, 교회에서는 장로와 평신도가 될것을 믿음으로 겸허히 받은 것이다. 주인으로 충실히 섬기며 자기 직분을 다하였다. 조덕삼은 후일 사재를 털어 유광학교를 세워 후진 양성에 매진하였으며, 이자익의 목회를 위해 평양신학교에 보내고 학비 전액을 지원해주기도 하였다. 1910년 조덕삼이 장로로 피택되었을 때는 이자익을 목사로 초빙해 금산교회의 담임목사와 장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골 작은 교회의 목사였던 이자익 목사는 후에 3회에 걸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하였다.

미국 남장로교의 테이트, 레이놀즈, 전킨 선교사 등 호남7인의 선발대에서 시작된 전라북도 지역의 선교는 이렇게 전주를 시작으로 군산, 익산, 김제까지 전라북도 전 지역에 미쳤다. 지금도 이 지역의 교회, 학교, 병원 등은 그 발자취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끝> [GNPNEWS]

* 다음 호부터는 전라남도 편이 연재됩니다.

참고문헌: <전라북도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의 현황과 의미>(2012)



선교 통신

“예수님 대신에 유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난 이스마엘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집과 명예, 수입, 그리고 친구와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현재 30대 후반이지만 처음 기독교 서적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된 때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스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라면서 의무적으로 외우게 되는 코란을 암송하느라 항상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코란의 2번째 장을 외우던 중, 그는 코란에 적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닌 유다가 대신 못 박혀 죽었다는 점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왜 기독교

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전히 믿고 있는가에 대해 그는 이슬람 학자이신 그의 할아버지에게 찾아가 여쭙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것은 크리스천들이 거짓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다”라는 말 외에 수긍할 만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의문을 계기로 시작된 성경공부

이 일을 계기로 이스마엘은 진정한 진리인 복음을 더욱 갈망하게 되어 이슬람교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슬람교에는 어떠한 진리도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고 사촌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이었지만, 진리를 알기 위해서 꾸준히 유럽의 기독교 단체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 출처: Opendoorsusa 캡처

기독교인들과 서신을 왕래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 이스마엘은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왜곡된 크리스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당

시 많은 무슬림 부모들은 자녀에게 크리스천은 인간이 아니며 악마처럼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기도 했다.

이스마엘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통해 직접 주님께 구하는 것을 보

며 그들의 기도를 모방하여 그 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쳤다. 자신은 죄인이며 주님의 사랑을 구한다고 기도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슬림들의 관념이 그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방해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주 단순하고 짧은 꿈을 꾸게 되었다.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는 결국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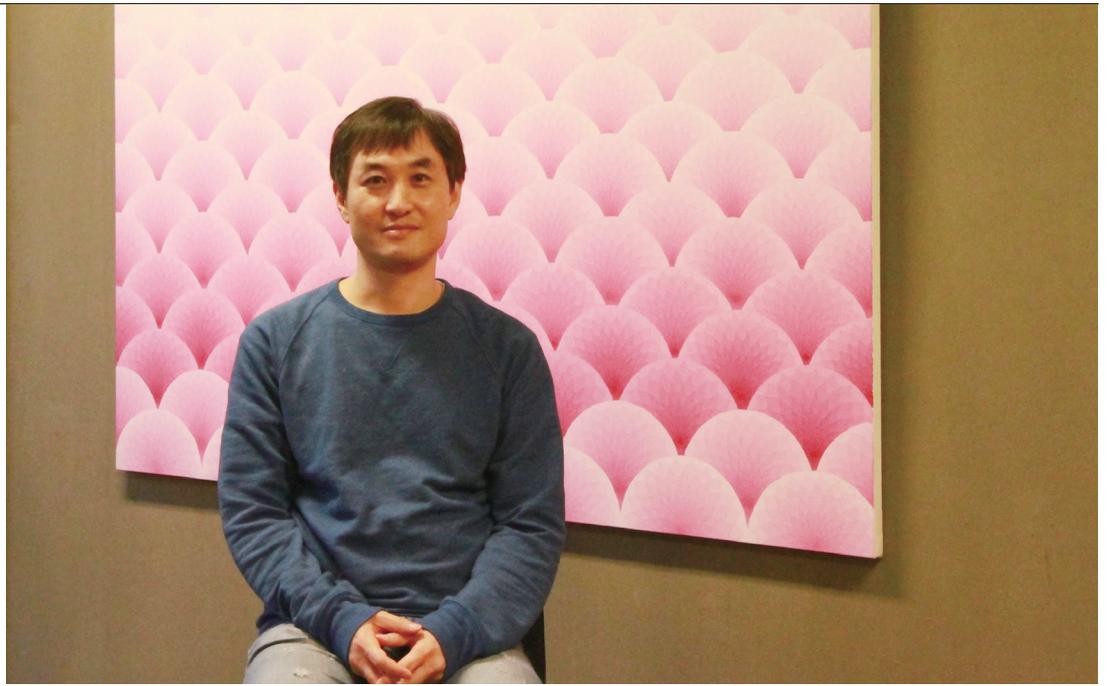
주님을 믿는 그의 견고한 신앙은 지금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는 무슬림지역 팔레스타인에서 오늘날 비밀신자로서 계속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 [GNPNEWS]

<출처: 오픈도어선교회>

🎙️ 믿음의 현장을 가다 | 공연예술·교육 편

“공연예술을 통해 청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영혼의 회복을 꿈꾸는 양문수 대표(극단 푸른하늘·뽕큐포더뮤직 스튜디오)



무대 위의 예술을 꿈꾸는 이들에게 노래와 연기는 필수다. 그러나 단지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는 슈퍼스타를 꿈꾸는 것만으로는 참된 예술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일이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예술은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극단 푸른하늘 양문수 대표(46. 용산교회)를 만났다.

늦은 오후, 아래층 타이어 가게에서 전통 드릴 소리가 요란하다. 그러나 좁은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 문을 열면 판 세상인 듯, 고운 선율의 피아노 소리와 함께 노랫소리가 흐른다. 음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은 이 스튜디오의 이름은 뽕큐포더뮤직(Thank you for The Music). 오후 3시부터 매 시간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연습생들에게 레슨을 하는 이는 양문수 대표와 아내 장지영 자매다.



▶ 작곡가인 아내 장지영 자매는 학생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있다

레슨을 받으러 오는 청년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뮤지컬과 연기 전공자들이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면 유명한 뮤지컬 넘버를 부르고 연기의 이론과 실제를 가르치지만, 주일에는 함께 말씀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린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레슨하고 작품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은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삶이 되었다.

레슨과 작품으로 시작된 공동체

- 어떻게 이 스튜디오를 열게 되셨나요?

“연기를 전공하긴 했지만 2016년 이 스튜디오를 열기 전까지는 뮤지컬 기획을 했어요. 총체적인 복음을 만나고, 존재적인 교회로서의

삶에 결론을 내리고 삶을 하나하나 정리했죠. 그리고 복음의 통로로 청년들을 가르치는 이 스튜디오를 열게 하셨어요. 제가 계획한 것은 없는데,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주셔서 따라와보니 어느덧 공동체가 되어있었어요.”

-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한데요?

“저는 4대째 크리스천 집안에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죠. 어머니는 화가셨는데, 부모님께서 일찍 이혼을 하셨어요. 배우를 꿈꾸던 저는 그 꿈에 헌신했죠. 27살에 미국 유학을 갔다가 술, 도박, 음란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러다 한 교회의 수련회에 가게 됐어요. 마지막 시간 형제들이 모여 죄를 고백하는데, 형제들의 은밀한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회개와 방언이 일어나면서 모두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제가 늘 기도하던 것이었죠.”

-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두고 왜 쓰레기 같은 것을 좇아 살았는지 친구들과 준비하던 사업도 접고, 미국 영주권 신청도 포기했어요. 새벽까지 술 마시던 그 시간에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를 하고, 도서관에서 저녁까지 말씀보고 집에 와서 자고. 단순한 생활을 했어요. 말씀이 꿀처럼 달았어요. 맨해튼에서 지내는 생활비가 월 400만 원 정도 드는데 주님이 일을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서 안했어요. 기도로 생활비를 구하면 기적처럼 응답받으며 3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 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신학교에 다니고,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러다 빛을 갠으려고 택시 운전 시작했어요. 항상 제 차를 타는 손님 중 웨스트리트에서 꽤 큰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제안으로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고 한국과 중국지사 대표로 귀국했어요. 금의환향한 거죠.”

- 소설 같은 이야기네요.

“네. 승승장구하다가 다시 술과 세상에 빠졌어요. 그때 주님께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리저리 않겠습니다.’라고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를 하는데, 마

음속에 질문이 들어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 아니었어요. 나는 반드시 그렇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죠. 절망이었어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주님의 뜻대로 회복해가는 과정을 지나면서 한 선교단체의 훈련과정을 통해 총체적인 복음을 만났어요. 지나온 삶에 대한 대가 지불, 정산이 필요했어요. 빛을 정리해야 한다는 마음에 뮤지컬 사업을 접고, 카드도 다 잘랐어요. 삶과 재정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선교관학교에서 아웃리치도 다녀오고, 결혼도 했어요. 오산에서 삶을 시작하면서 마침 미국에서 같이 신학교에 다니며 교류해왔던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소식을 들려줬어요. 망설임 없이 함께 교회로 서며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존재의 목적은 교회로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됐죠. 1년 후 서울로 이사 갈 마음을 주셔서 이곳 용산에 오게 됐어요.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생각도 안 했는데 아내는 작곡 전공이니 보컬을, 저는 연기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 스튜디오를 열게 하셨어요. 예배처소로 생각한 집을 얻는 것부터 스튜디오를 얻는 것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처음엔 6~7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많을 때는 15명 정도 돼요.”

유학, 방황, 회심, 소설 같은 삶

- 레슨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곳에 오는 이들은 20대 청년들이에요. 대부분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 친구들이 대부분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저는 예술이 영적인 일이라 생각해요. 지성이 훌륭해도 마음이 사로잡히면 모든 걸 바치죠. 예술은 그런 거예요. 어떤 팝송을 듣고 몽클할 때가 있잖아요. 영어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듣고 울어요. 사실은 그가 만든 노래에 담긴 마음을 받은 거죠. 예술은 이렇게 자기의 영, 즉 마음을 어떤 그림에 담는 거죠. 글과 소리는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고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

는 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예술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재창조 밖에할 수 없어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예술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모르면 안 되죠. 저 역시 주님을 알고 나서 연기가 무엇인지, 예술이 무엇인지 더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레슨을 하면서 6개월 이상 충분히 관계를 갖고 서로 신뢰가 쌓이면 원하는 이들에게는 복음교재로 질문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왜 사는가, 행복인가?’ 하루에 한 질문씩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로 초대하죠.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아이가 행복을 알게 되고, 내가 왜 죄인이라고 했던 자매가 복음훈련에 참여하고, 선교관학교에 가고, 새벽 5시에 기도를 해요. 선교적 존재로 완전히 삶이 변화된 자매도 있어요. 그 변화를 보고 다른 친구들이 또 예배에 나오고, 서로 교제를 하다가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훈련 과정에 참여해요.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만난 친구들이 여러 명이예요. 절대 강요는 하지 않아요.”

- 결국 교회로 삶을 사는 것이군요. “이 일이 예전에는 제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통로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어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수업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일하고. 공동체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

주신 아이들입니다. 너무 귀해요. 율 여름에는 15명 정도 다 같이 미국에 다녀왔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한 여행이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지체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군요. 더 밀접한 관계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알아야 진정한 연기자

- 때로는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복음을 전했을 때 수업을 거부하고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의 역할은 사랑이지 판단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병을 고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 그럼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전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편에 서는 것이죠. 미국에서 택시운전을 할 때 항상 제 차를 불러 타는 매춘 여성이 있었는데, 한국교포였어요. 그런데 늘 가스펠을 틀어달라고 했어요. 교회에 가라고 했더니 ‘이미 가봤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피했다.’는 거예요. 화장이 질고 장신구도 많고, 모습 자체가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성도님, 옆에도 좋은 교회가 있으니 그리 가보셔라.’고 했대요. ‘그런데 왜 안 간 줄 아느냐. 내가 다른 교회에 가면 그들도 또 나를 피하고 제대로 예배를 못 볼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강하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라면 교회에 있겠니, 이 여자에게 있겠니.’ 그때 생각했어요. 저는 교회 밖에서 매춘여성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요.

〈6면에 계속〉



▶ 내년 초에 공개할 첫 번째 워크숍 작품을 준비하는 학생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로템나무 아래 (3)

낙심케 할 이유보다 승리의 복음을 주목하라

두려움에 질린 채 죽음을 피해 숨어 있던 엘리야. 그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운명으로 받았지만, 어느새 믿음의 자리에서 슬쩍 물러나 낙심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대고 있는 믿음의 증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주저앉아 있던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상 19:15~16)

왕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왕을 세우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낙심하여 절망한 엘리야가 이 명령으로 회복되었는데, 이 명

령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첫째, 모든 나라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따라서 복음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짓밟히는 것 같은 현상(現象)에 속아서는 안 된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철저히,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신 이유는 아람 가문을 반드시 철저히 완전하게 심판하시기 위함이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믿음의 증인들은 낙심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늦는 법이 없을뿐더러, 철저히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셋째,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인생은 끝날 수 있어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으며, 기도



일러스트=임이량

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다. 엘리야가 아무리 크게 쓰임 받아도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엘리야가 할 일은 그저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뿐이다.

넷째,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능력은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 두셨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왕상 19:18)

복음의 완전한 승리를 맞보고도 실패와 좌절을 겪고 넘어질 때, 낙심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낙심과 절망은 믿음의 증인들로 하여금 위의 4가지 사실을 망각하게 만든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다. 낙심하여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찾아와 일으키시는 주님은 믿음의 증인들을 다시 승리의 자리로 이끄신다. 그러기에 믿음의 증인들은 결코 망할 수 없다! 믿음의 증인들이여, 지금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는가?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지만, 진리에 부름 받은 사명자가 흔들리면 진리가 방해 받는다! 그러므로 사명자들이여, 낙심케 할 충분한 이유보다 더 분명한 승리의 복음을 주목하라(2016. 7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총서1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예수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나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다!
들어라 전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어디서든 전도를 멈추지 말라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_김정화 저

내가 굶다
뜯어주는
전도편지 100

별책부록의 전도편지를 한 장씩 뜯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값: 19,000원
(별책부록 포함)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선교적 존재로 살려면 사랑밖에 없어요”

중동에 복음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예술이 들어가면 사람들 마음이 열리죠. 저는 예술이 그런 것이라 생각해요. 성경 자체는 아니지만 복음적인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하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 작품은 어떻게 발표하시나요?
“이론 수업이 끝나면 워크숍 작품을 발표해요. 첫 작품인데요, 위안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결국 회개의 문제인데, 진정한 회개와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와 상처의 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공의, 선, 사랑. 이런 주제로 함께 책을 읽고 깊이 토의하면서 대본부터 같이 작업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극단이 만들어졌어요. 배우들이 먹고 사는게 참 힘든데,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공연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복음 이전에는 티켓수입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사는 것이 목적이예요. 이들이 진정한 예술가로, 천국을 침노하는 용사들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첫 워크숍, 위안부 이야기로 회개와 치유

- 이 일의 최종적인 비전이 있을까요?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선교적 존재로 살려면 사랑밖에 없어요. 예술의 모든 목표도 사랑이고요. 사랑은 달콤한 게 아니라 피 흘리고 고통받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게 사랑이예요. 아이들도 사랑만이 바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사랑으로 전해요. 마음은 전혀 안주면서 복음을 말할 수 없죠. 저는 선교사예요. 믿는 자들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고, 다른 것은 전혀 우리의 목적이 되어

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어요. 애초부터 자적이 없던 발표도 같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나의 어퍼함에 상관없이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세요. 지금 빛을 지지 않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살아요. 안 돼도 괜찮고요. 주님이 하세요. 하나도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전부가 주님의 것이예요.”

- 기도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같이 있는 지체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능력으로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만으로 주님 사랑 전하면서 살 수 있길 기도해 주세요.” [GNPNEWS]

E.J.

▶연습실에서 아내와 제자들과 함께



“기도만 한다고 선교가 가능하냐고? 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조금도 변함 없고, 부족한 적도, 빼앗겨 본 적도 없으신 완전하고 총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끊임없이 배반하는 이 죄인이 무엇이길래 아들 예수를 잡아 죽이면서까지 창세 때 주시고자 하셨던 영광대로 계속 회복시키실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끝없는 사랑이시다.

영광으로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

그러나 나는 바보같이 어리석었다. 나무와 꽃들을 보며 '너희들은 참 좋겠다. 아무 죄도 안 짓고 염려도 없이 태초에 주님이 만드셨던 그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라며 부러워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던 나에게 주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얼마나 크지, 이 영광을 어떻게 고스란히 나에게 담아 놓으셨는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5박 6일간의 느헤미야기도의 자리에서 알게 되었다. 나뿐 아니라 70억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하게 부여했다. 그러나 복음을 알기 전 나와 같이 그들도 죄악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알게 되었다.

기도정보가 담긴 책에서 '독사 새

끼처럼 상황만 맞으면 머리를 드는 자기 의'라는 문장이 강하게 나를 때렸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기도 자리에서조차 기도를 잘 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자기 의'를 보여주었다. 혼자 기도할 때는 말씀 자체로, 기도제목을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습관이었기에 대표기도는 더욱 두려웠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었다. 이런 내게 주님은 기도의 말이 아니라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신다고 알려주셨다. 열방의 상황 앞에 도저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내 지식이 아닌 성령님께 구하고 의지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

난리와 소문이 끊이지 않고 핍박이 심해지면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말씀처럼 지금이 그때임을 알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했다. 세계적으로 핍박받는 나라는 77개국이며, 이외에도 보이지 않게 핍박받는 현장들이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보여 주시며 고난이 끝이 아닌 주님 걸으



일러스트=박남희

신 길에서 반드시 보게 될 영광을 결론 삼게 하셨다.

기도를 통해 보게 될 주님의 영광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겪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했고, 증인들의 삶이 그러했다. 이제는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외쳐야 할 때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어나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기도하다 졸고 말았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위축된 마음으로 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을 주시며 다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다. 내가 졸고 있는 그동안에도 생명으로 기도하였던 지체들을

나와 같은 한 몸으로 받으며 교회의 연합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 기도만 해서 선교가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당연히 'yes'라고 답할 것이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이 연합하고 기도하여 마침내는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하여 그 날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 내 두 눈으로 주님을 뵈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케 하신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우리 주님은 가까이 오셨다! 모든 교회여 깨어 일어나라! 복음과 기도의 병기를 들고 그 날의 영광을 맞이하자!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GNPNEWS]

송영미 선교사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김일성 우상화 장소, 북한 전역에 45만 곳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신의 자리에 군림한 사람

북쪽 나라에 머슴살이를 하던 한 사람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 왕은 자신이 머슴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업신여길까 봐 걱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걱정거리를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버지를 사람이 아닌 신으로 만들기 위해 사람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머슴이었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다섯 집을 하나로 묶어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면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북쪽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태어나서 탁아소에 맡겨지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부르기 전부터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 고맙습니다.”라고 큰소리로 외쳐야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평양의 주체사상 탑 (출처: thousandwonders 캡처)

왕인 아버지가 늙어가자 아들은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아 군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37년 철권통치로 휘둘렀던 김정일

도 죽었습니다.

지금도 우상숭배는 이어져

김일성이 사망(1994년 7월 8일)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죽은 김일성에 대한 숭배는 여전히 북한 땅

을 뒤덮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만수대 광장의 김일성 동상,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 김일성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주석궁, 주

체사상탑, 영생탑, 김정일의 출생지로 둔갑한 백두산 등입니다.

그중에서도 김일성 60회 생일을 기념해 1972년 4월 평양 만수대 언덕에 세운 조선혁명박물관과 그 앞에 있는 동상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동상의 높이는 받침대 3m를 포함해 자그마치 23m에 달합니다. 이와 비슷한 동상들은 평양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 70여 곳에 있습니다. 석고상, 사적물 등을 합치면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 선전물은 대략 14만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기독교 예배당과 같은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 (2006년경부터 '김일성주의 연구실'로 불림)을 갖추고 그 안에서 모임과 학습 등 예배의식을 행하는데 이와 같은 혁명사상연구소가 행정기관, 산업기관, 군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약 45만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만족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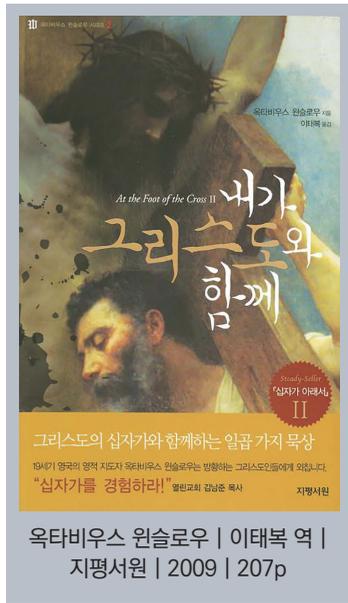
노동자 계층에서 태어나 14살부터 일주일에 58시간씩 베짜는 일을 하던 메리 슬레서는 어머니를 따라 간 교회에서 복음을 만났다. 그리고 아프리카 칼라바르 선교에 헌신한다. 그녀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 '원주민의 풍습을 따르자'는 결정을 내리고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고 머리를 자르고 간단한 복장과즈크신을 신었다.

메리는 열병으로 고생하기도 하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충성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졸도로 쓰러진 이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낸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승리에 차 있거나 기분 좋은 때가 드물다 해도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곳에 계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GNPNEWS]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이룬 속죄는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한다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는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19세기 영국의 목회자로 탁월한 설교와 열정적인 사역, 저작 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복음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했던 설교자였다. 그는 이 책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뿔을 들어 올린 이야기를 시작으로 복음의

진수를 풀어나간다. “불뿔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민 21:8) 불뿔의 독과 같이 치명적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 심각한 상태에서 누가 우리를 고쳐 줄 것인가? 위대한 모세도 이 문제 앞에선 무력하다. 불순종으로 불뿔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그러나 불뿔을 만들어 쳐다보면 살게 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선포되는 진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뿔은 아무런 불포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다. 그러나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놋뿔은 불뿔의 무서운 독을 단숨에 치료하고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기적의 도구였다.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단순한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놋뿔을 바라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이룬 속죄는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한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얼마나 단순하고 완벽한지 굳게 믿어야 한다.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또 그 고통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라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분한 위로와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얻을 것이다. 책을 보며 복잡하게 꼬인 자아의 변명과 뉘우침으로 허망하여진 내 마음 안에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더욱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나는 때때로 ‘죄인의 고통을 주님이 이해하실까?’라고 생각하곤 했다. ‘죄와 상관없으신 우리 주님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벗어날 수 없는 나의 고통과 수치, 낙담을 아실까? 이 고통을 주님과 나눌 수

없다면 주님과 내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그러나 책을 읽으며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갈보리까지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에는 무엇보다 죄로 인한 깊은 슬픔이 있었다. 그 무거운 십자가는 자기 백성의 많은 죄들이었으리라. 죄로 인해 깊이 고통하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주님은 체휼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대속자가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에게 전가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반드시 누리고 싶은 은혜가 있다.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죄책과 사망과 영원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완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다 이루신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가 나의 삶에서 빛나기까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에 대한 정죄를 벗어나고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것이다.

다 이루신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

이 책을 읽으며 흥분이 되었던 것은 내가 믿고 붙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구원의 근거임에 더욱 아멘 되었던 때문이다. 오직 성도들의 유일한 무기, 유일한 안식,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이 모든 진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고 산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더욱 자신 있게 고백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좋은 길,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GNPNEWS]

우미영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전도하다 곤경에 처한 동료 선교사를 보며...

저는 신학대학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저의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하루를 순종합니다. 이러한 삶의 일환으로 날마다 순종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불신자에게 짧은 전도지 혹은 복음기도신문을 전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충분히 복음을 나눌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느덧 나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전도에 대해 ‘해야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면 할수록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한풀 더위가 꺾인 8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평소처럼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한 대형마트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웅성대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함께 있는 선교사님 가정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형제 선교사님이 어떤 아저씨로부터 거친 욕설을 들으며 금방이라도 폭력을 당하기 직전의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과 어린 두 딸들이 아빠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과정을 고

스란히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뭐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라고 아저씨를 뜯어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 그분의 고난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불신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부어지

갑자기 불신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또한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비방과 조롱, 폭력과 위협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불신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그곳에 있던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고난당함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부모를 본받아 고난 받는 교회로 자라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마트 앞 광장을 가득 메웠던 소리가 잦아들고, 사람들도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선교사님 가정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나는 그 광장에 있던 다른 사람을 찾아가 또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내게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욕을 먹고 무

시를 당해도 불신영혼들을 찾아가는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어느 선교사의 고백처럼 이것은 저의 열정이 아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은 유익입니다. “주님, 제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소서! 고난이 더 할수록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GNPNEWS]

정다영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7. 10. 12 ~ 10. 24 (가나다 순)
개인
강은진 강종채 국진영 권혜령 김경선 김선희 김수미 김영세 박선영 박승민 박승은 안병윤 유자인 이경희 이은주 이주연 이준진 이현지 임종태 장근혜 장영선 정영숙 정윤희 조성실 최정숙 하은숙 허금희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그루터기교회 목자교회 순회선교단미주지부 시흥지체교회 전능자의그늘미스트리 전주온누리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